

일제말기 한국과 대만 소설에 나타난 결혼문제의 대비적 연구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와 왕창송(王昶雄)의 「분류(奔流)」를 중심으로

인위정*

Lin, Wei-ting. A Comparative Study on Korea-Taiwan Novels in Reward of Marriage of Japanese and Korean under Japanese Imperialism – Focused on the Works of Yi, Gwang-Su's 「Until Minds Meet」 and Wang, Zhang-Xiong's 「A Raging Torrent」. The research is focused on how novelists responded to the policy which advocated the reward of marriage of Japanese and Korean in the novels as well as the real life under Japanese imperialism. It also helps to understand how the literature in both Korea and Taiwan reflected the social status as well as social phenomenon of the time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since 1937 Japanese imperialism started to enforce the Kohminka movement in Korea and Taiwan. The implementation of Kohminka movement was promoted on a legal basis of national policy, “Japan and Korea (Taiwan) are the one”. The research focuses on the full-length novel 「Until Minds Meet」 by Yi, Gwang-Su, Korea and the medium-length novel 「A Raging Torrent」 by Wang, Zhang-Xiong, Taiwan.

Keywords: Gwang-Su Yi, Zhang-Xiong Wang, Reward of Marriage, Japanese Colonial Period

1. 서론-양국의 시대상황과 내선결혼(내대결혼)의 연구성과

1910년 8월 29일 한국은 韓日合併 條約에 의하여 국토와 주권을 잃고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895년에 청일전쟁에 패한 청나라가 馬關條約에 의하여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였다. 그때부터 대만은 완전히 일본 국토의 한 부분이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은 1945년 세계2차 대전에서 일본이

폐한 후에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제는 황민화운동¹⁾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내선일체와 ‘일시동인’²⁾을 바탕으로 한 내선결혼(내대결혼)의 장려도 황민화운동의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실시되었다. 내외일체를 강요하는 내선일체(일시동인) 중에 외적인 결합은 창씨개명(이름 바꾸기)로 이루어졌고, 내면적인 결합은 정신적으로 황민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황국신민서사를 낭송하는 것이었으며, 이밖에 피와 살이 일체가 되는 내선결혼(내대결혼)도 사용하게 되었다. 신성한 애정이 내선일체(일시동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1939년 11월 10일자 제령 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11조의 2에 의하여 ‘일선통혼’을 가로막던 종래의 법적 제약은 폐지하였³⁾고 내선결혼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결혼이란 보통 다른 것과 달리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 안이오 애정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니 그럴려면 이런 애정을 복도들 여기 내선남녀의 회합할 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선인이 결혼한 예를 보아 볼만한 것도 없는 것은 안이나 대체로 행복한 것을 보면 애정이란 국경이나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는만치 여기 내선결혼에 조그마한 제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결혼은 두 사람의 생활을 단일화하고 두 사람의 생활의 세계를 잘 융화시키는이만치 여기 감정적으로 융화되는 부부가 나아가서는 혈족적으로 완전히 융화가 될 것이므로 해서 이 내선일체운동의 적극적인 好結果를 낼 것이라 믿는다.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반 학생

¹⁾ 양국에서 실시하던 황민화운동은 신사참배, 국어(일본어)보급,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의 장려까지 포함하였고,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병력이 부족하여 증병을 하기 위해 실시하던 징병제도도 있었다. 양국에서 사용하는 국책의 호칭은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어보급, 창씨개명, 내선결혼과 징병제도는 대만에서 國語普及, 改姓名, 日臺親善과 徵兵制로 부르게 된다. 그러나 日臺親善이라는 것은 단지 대만인이 일본인과의 결혼장려라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낸다는 바랍의 뜻도 내포하고 있기에 한국의 내선결혼과 더불어 언급할 때는 내대결혼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하 제시된 정책의 호칭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만 부분은 관호로 처리한다. 본고는 임위정, 「일제말기 한국과 타이완 친일문학의 비교연구」(2007) 석사학위논문 참조하였다.

²⁾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것은 일제가 대만에 실시하던 민족동화정책과 이에 대한 슬로건이었으며, 한국의 내선일체에 해당한다.

³⁾ 「일선인 결혼법」, 『동아일보』, 1920. 4. 29.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88, 219쪽 재인용.

⁴⁾ 「내선일체와 신동아건설」, 『조광』, 1940. 1. 119쪽. 조진기, 「일제말기 국책소설

이러한 주장은 내선결혼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책의 의미를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南次郎(미나미) 총독이 내선일체를 제창하기 전에도 이미 재일유학생과 일본에 가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결혼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1920년 4월 28일에 이 왕세자 垠(은)과 일본 황족인 梨本宮 方子(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정략결혼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결혼은 내선결혼이라는 정책에 속하지 않았다⁵. 1938년 일제가 내선일체를 주장한 이후부터 내선결혼은 본격적으로 국책에 연결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으로 결합한 부부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증정하여 내선결혼을 장려하였다.⁶

대만에서는, 皇領초기(1895-1919)⁷에는 대만 사람과 일본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과 원주민⁸의 결혼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여기에는 원주민에게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으며, 또 원주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有望한 일본경찰과 원주민의 두목 혹은 원주민 종족 중 지위가 높은 사람의 딸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결혼한 일본 경찰들의 경우 법적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게 된 원주민 아내는 內緣妻⁹가 되지 않을

연구」, 『인문논총』, 제 20 집, 2006, 6 쪽 재인용.

⁵ 이 부분은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김재용(외), 『천원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117-126 쪽과, 호사카 유우지, 「일본제국 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J&C, 2002, 206-210 쪽 참조.

⁶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현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 제 50 집, 2007, 440 면.

⁷ 호사카 유우지는 대만 민족정책의 시기를 각 1895-1919의 황령군사통치주의시대, 1919-1932의 동화정책 정착시대와 1932-1945의 동화정책 강화완결시대 등 간계로 나누었다. 호사카 유우지, 앞의 책, 311-322 쪽 참조.

⁸ 지금은 원주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1936년 전 후에는 각 오랑캐, 高砂族이라고 불렀다.

⁹ 內緣妻란 일반적인 혼인생활이 다른 부부와 다름이 없으나, 법률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관계 아래의 아내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혼인결과도 기대하지 못한다. 마호보우(馬赫坡) 두목인 모나 루파오(莫那魯道)의 여동생이 일본인 순경과 결혼하고, 몇 년 후 일본인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어딘가로 가 버린 것을 예로

수 없었다. 원주민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원주민들 서로 간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리에 편의를 위한 것이다. 1920년 후에 대만의 첫 번째 문관 총독인 田健治郎(텐 겐시로)가 ‘내지연장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내대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말기 소설 가운데 내선(대)연애와 내선(대)결혼을 다룬 소설의 수량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이경훈의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1998)는 작가 위주로 친일문학을 폭넓게 연구하고 이광수의 친일작품을 황민화정책에 따라 분류하였다. 김양선의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와 여성(성)의 전유 양상」(2002)은 문명/ 야만, 우월/ 열등, 이성/ 감성, 주체/ 객체라는 이항대립으로 작품 속의 여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경의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2003)는 일제말기 국책가운데 내선결혼에 관한 소설을 연구한 것이고 이것을 내선결혼 긍정론과 내선결혼 부정론으로 나누며 긍정론을 더욱 자세히 1) ‘피’의 동일성에 기반한 내선결혼과, 2) 사라질 구세대와 낡은 인습으로 검토하고, 부정론을 1) 숙명적인 ‘피’의 이질성과, 2) 기질의 차이를 낳는 사회적 환경으로 신구세대의 관점으로 각각 검토하였다. 심진경의 「식민/ 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2005)는 민족과 젠더의 위계로 식민지 남성과 제국 여성의 연애와 결혼문제를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명확히 내대결혼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소설이 일제의 동화정책에 영

들 수 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여러 일본인에 대한 불만이 쌓여 1930년 10월 27일 원주민들이 일어나 우스이(霧社)사건을 일으킨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결과는 실패로 끝난다. 周婉窈, 『台灣歷史圖說』, 聯經, 1998, 124-126 쪽과 遠流台灣館編著, 『台灣史小事典』, 2000, 143 쪽 참조.

합하는 협력의 성격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때는 보통 결혼문제를 다루게 된다. 린루에밍(林瑞明)의 「騷動的 영혼-결전시기의 대만 작가와 황민문학」(1992)¹⁰은 바로 이러한 연구이다. 그는 대만 작가 천취취엔(陳火泉)의 「도(道)」와 왕창송(王昶雄)의 「분류(奔流)」를 서로 비교하면서 왕창송(王昶雄)의 「분류(奔流)」에 담겨 있는 내대결혼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처럼 내선결혼(내대결혼)연구는 양국이 어느 정도의 연구성과를 보이지만, 일제말기 한국과 대만의 내선결혼(내대결혼)에 관한 소설을 내조(혹은 비교)하는 연구는 선무한 실정이고¹¹, 그래서 본고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 대만에서는 왕창송(王昶雄)의 「분류(奔流)」,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내선일체(一視同仁) 실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양국의 차이점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2. 내선일체(一視同仁)의 실천과 내선결혼(내대결혼)의 가능성

1936년 南次郎(비나미)가 조선 3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부터 내선일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내선일체란 단순히 서로 손을 잡거나 융합하는 것 같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내적·외적으로의 결합이라고 지적하였다.¹² 살과 피의 결합으로 내적인 일체를

¹⁰ 林瑞明, 「騷動的靈魂-決戰時期的台灣作家與皇民文學」(1992), 『台灣文學的歷史考察』, 允晨, 1997.

¹¹ 일제시대 양국 소설의 비교연구는 중천부(付天富)의 「일제말기 한국과 대만소설의 비교연구」-李無影과 呂赫蒼 소설중의 歸農모티프와 그 의미- (1999)와 김광수의 「日帝時代 韓國과 臺灣 작가의 二重言語文學」(2002)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내선결혼(내대결혼)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¹² 조선총독부(1940),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役員總會席上總務」, 1939. 5. 30,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國學資料院, 1997, 29 쪽 참조.

달성할 수 있는 내선결혼을 통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논조 아래에서 이광수(1892-1955?)는 1940년 3월 『녹기』에 이와 관련한 장편소설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를 발표하였다.

이광수의 친일경향이 농후한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¹³⁾는 소설의 앞 부분, 작가의 말¹⁴⁾에서 본인이 직접 내선일체에 대한 생각과 주

¹³⁾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조선인 김충식이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한 일본인 남매 히가시 타케오와 후미에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다. 타케오가 의식을 되찾은 후, 자기가 조선인의 집에 있다는 것과 여동생이 조선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느낌이 들었으니 며칠 간 충식이네 집에 머문 후, 타케오는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점점 없어졌다. 히가시 육군 대좌는 자식들이 조난을 당한 것과 충식 일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충식이네집을 찾아가 고마운 뜻으로 백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봉투에 담아 충식의 아버지인 김영준에게 건네주려는데 김영준은 받지 않는다. 충식의 집에서 나온 히가시는 不逞婦人이라고 불리는 김영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는 “조선인을 진실로 청황의 신민으로 하기 위해서는 김영준 같은 사람의 마음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된다. 두 달 후, 타케오와 후미에가 다시 김충식의 집을 방문하는데 석란이 조선옷을 입고 온 후미에를 보고 놀라워한다. 타케오는 김충식에게 본인이 예전에 조선인에게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사과하고 충식 남매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초대한 날일 날 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특히 타케오는 석란에 대한 감정이 애정으로 바뀌면서 사랑하게 된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후, 충식은 타케오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타케오가 곧 입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식도 아버지인 김영준의 허락을 받고 군의관으로 지원하여 입대한다. 그리고 석란과 후미에도 이전병원에 지원하여 간호사가 된다. 어느 날, 얼굴 전체를 봉대로 감은 한 병사가 실려 들어온다. 알고 보니 이 병사는 바로 타케오였다. 네 사람은 또 다시 만나게 된다. 시력을 잃은 타케오는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적전에 들어가 일본의 진의를 적에게 알려주는 소위 宣撫工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석란과 조출한 결혼식을 올린 후, 피난민으로 가장해 宣撫工作을 하기 위해서 적진인 蘇家集으로 들어간다. 타케오는 석란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이용해 중국 군대 師長인 楚鵬를 만나 蔣介石을 비판하고 일본인이 참전한 진정한 목적은 大東亞共榮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타케오와 석란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으나, 타케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고, 장님이 되고 나서 “五官은 상통한다”는 釋迦의 말이 들린 것이 없다면,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¹⁴⁾ “천하를 다스리시는 천황의 神, 그리고 참과 나란히 야마토(大和)도 고구려도 하나가 되기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씁니다. 야마토와 고구려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힘으로, 또는 싫어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랑하며 융합된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한 한 경우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같은 神의 일족(氏)입니다. 같은 大君의 赤子입니다. 야마토와 고구려가 융합하지 않고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있어 그것은 결코 보통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슬픔을 가진 凡夫에게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장을 분명히 밝혔고 글의 끝 부분에서도 역시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으며 소설의 내용이 웅대한 내선일체를 위해 정성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작품내용을 보면 내선일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 소설을 일본인/ 조선인, 계몽 주체/ 계몽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인 타케오와 후미에 오누이가 세 번째 충식네 집을 방문하였을 때, 타케오는 충식의 아버지 김영준에게 조선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누이동생 후미에를 가리키며 “조선인도 일본인도 결국 다름 바 없다는 것입니다.(35)”라고 김영준에게 계몽 실패를 시도한다. 여기서 김영준은 세상 사람들이 排日家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그러나 계몽 대상인 김영준(조선인)이 계몽 주체인 타케오(일본인)에게 하는 말이, 오히려 지금까지 내선일체를 제창해 온 일본인의 심리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평등하게 하는 일이다. 우선 양 민족을 평등한 지위에 두고서부터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것이다. 우선 부족한 한쪽을 부족하지 않게 한 뒤에 평등하게 한다면,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족한 쪽이 국민적 감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37-38)

이러한 김영준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내선일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문제이고, 일제가 제창하는 ‘조선은 일본과 다름이 없다’는 내선일체는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¹⁵⁾

하지만 야마토도 고구려도 小我를 잊고 大我에 殉하자는 결심만 있다면, 서로 하나로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될 因果에 눈뜨기만 한다면, 역시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知幻即離라고나 할까요. 눈뜨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변치 않은 이야기가 內鮮一體의 대업에 더할만한 공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나의 바람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광수, 「작가의 말」, 이정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 평민사, 1995, 9 쪽. 본고에서는 이 작품집을 인용할 때 인용된 문장 뒤에 쪽수만 밝힌다.

¹⁵⁾ 김경미는 “내선일체의 가장 큰 모순점은 양 민족이 평등한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가 내세우는 내선일체의 논리는 조선인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발언이다. 이광수의 미니미 총독의 발언에 대한 의견은 논설과 소설에서 상반되게 서술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김경미, 「이광수 후반기 문학의 민족 담론의 양가성」,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타케오와 석란의 결혼이다. 우선 타케오의 어머니 키꾸코가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로 교제를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략) 거기다 내게 뭔가 잘못이라도 생겨 봐라. 그건 히가시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43-44)

키꾸코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타케오를 같은 일본 여성인 카와시마 미찌코와 결혼시키려고 하였으나 타케오는 이 婚事를 확실히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 키꾸코는 타케오와 조선 여성 석란과의 관계가 연애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였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케오는 석란에 대해 一片丹心이다. 작중 인물인 타케오는 일본인으로 실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본인도 조선인 못지 않게 효를 중요시하는 민족인데 타케오의 효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가 이광수의 사고방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조선서는 효가 최상의 도덕이었고 효의 내용은 자녀된 자가 부모의 志를 承順함이었다.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녀에게는 아무 자유가 없고 마치 전체군 주하의 국민과 같이 부모의 임의대로 처리할 노예나 가축과 다름이 없었다. (중략) 구조선의 자녀는 오직 父祖를 위하여서만 살았고, 일하였고, 죽었다. 부조의 뜻이 그네의 뜻이요, 부조의 목적이 곧 그네의 목적이었다. 만일 어느 자녀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不順父母之命하는 죄인일 거이다.¹⁶

생물학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인류의 목적이 (타생물과 같이)개체의 보전과 종족의 보전 발전에 있다 하면 천하의 중심은 자지요. 다음에 중한 것은 자손일 것이니,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악이라. 하물며 자기의 자유의지로 함이 아니요, 남의 노예가 되어서 함이라요. 자녀는 자기 편으로 보면 독립한 개체나 자녀는 서로 자녀 자신을 위하여 난 것이요. 부조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자녀는 결코 부조(그도 타개체이 매)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의무가 없고 또 부조가 자녀에게 희생 되기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¹⁷

『이문학』, 제 97 집, 2007, 197-198 쪽.

¹⁶ 이광수, 「자녀중심론」, 『이광수전집』 17 권, 40 쪽. 조진기, 『한국 현대문학의 위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33 쪽. 재인용.

¹⁷ 이광수, 「자녀중심론」, 『이광수전집』 17 권, 42 쪽. 조진기, 앞의 책, 34 쪽. 재인용.

이광수의 이러한 생각이 타케오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케오는 “결혼이 늦어지면 후미에(누이동생)의 결혼도 늦어진단 말 이야(44)”라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오빠가 먼저 장가가야 동생이 시집갈 수 있다는 것은 “구식”이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을 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논조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인애를 찬성하는 타케오의 석란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순수함에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사랑의 순수함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타케오의 조선인에 대한 생각을 살펴 보아야 한다.

조선인 학생들이 교실이나 어디서 자기들끼리 조선어로 술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타케오는 한 대 패주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을 떠올렸다. 뭔가 하등한 노예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메스메스한 것이었으며, 내지인끼리 모인 곳에서는 자주 조선인 학생의 버릇없는 일이라든지, 건방진 것, 편벽된 근성 등을 짚아내려던 것이었다.(17)

타케오는 조선인이 ‘노예같이 보이’고 또한 ‘버릇없고, 건방지고 편벽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웅식네 집에 있을 때 자신이 하얀 조선옷을 입고 있었던 것에도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조선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본인이자. 그는 처음 조선인 석란을 보았을 때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군.(15)”이라고 조선인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놀라워 하였다. 이것은 부의식적으로 조선인과 자신(타케오)의 차별성을 느끼는 것이고, 조선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으로 생활을 해 온 타케오는 석란을 사랑하게 되어 “조선인은 열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16)”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假 결혼식이지만, 석란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겉으로는 완벽한

내선결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 소설에서 타케오는 정상적인 몸을 가진 자가 아닌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국어(일본어)와 중국어가 능숙한’ 식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일본 남성과, 순수하고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조선 여성의 내선결혼이 불평등의 위치에서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이면이 있다면 진정한 내선결혼은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¹⁸고, 조선인은 일본인과 나란히 내선일체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닌, 일본인의 뒤에 따른다는 일체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후미에와 충식 두 사람의 미완성의 사랑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내선결혼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화된 동양 남자”¹⁹ 즉, 조선 남성인 충식은 남성성의 부재로써 오리엔탈리즘의 젠더화로 내선일체가 “상징적 허구”²⁰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암시되는 것이다.

일체의 대만에 대한 ‘一視同仁’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同軌에 놓여 있다. 1920년에 대만총독부가 내대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 11월에 황민봉공회에 선전부장 大澤眞吉(오오사와 신기치)가 「정병제도 후 통혼의 실시」라는 문장을 발표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났다.²¹

¹⁸ 이상경의 이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그런까한 내선일체의 이론을 서로 납득했다라도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여 내선결혼을 이루는 데는 일본 남성의 ‘실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완전한 내선일체를 위해 조선인이 일본인과 함께 군인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갈망했던 이렇수이지만 대등한 위치의 남자가 연애를 통해 피와 살을 섞는 내선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이 식민지 남성과 피식민지 여성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실명’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일본 남성과 조선 여성의 ‘연애’는 불가능했다.”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총위』, 김재용(외), 앞의 책, 134-135 쪽.

¹⁹ 존 맥클라우디(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 2003, 75 쪽.

²⁰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격: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005, 제 28 집, 171 쪽.

²¹ 星名宏修(莫素微譯), 『血液政治學-閱讀台灣皇民化時期文學』, 『台灣文學報』, 第六期, 2005, 45 쪽.

그러한 상황에서 왕창송(王昶雄, 1915-2000)은 『대만문학(臺灣文學)』²¹에 「분류(奔流)」라는 중편소설을 발표하였다.

「분류(奔流)」²²는 그 당시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황민화운동에 직면하는 대만 사람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작품이다.²³ 소설 안에 화자인 ‘나’-洪의사, 이토 하루오(伊東春生)와 린버니엔(林柏年) 세 명의 本島人²⁴을 등장시켜 그들의 심리상태를 통해서 一視同仁의 실천문제, 즉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일본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²²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삼 년 전, 고향에서 내과 의원을 개업 중이던 아버지의 急逝로 인해 도쿄에서 생활한 지 십 년이 되었던 ‘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시골 의사로서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도쿄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역시 결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다. 능숙한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그 남자는 伊東春生(이토 하루오)라는 本島人이고, 일본 여성과 결혼한 중학의 국어 선생이다. ‘나’는 이런 혼터라고는 전혀 없는 그 本島人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주 진료를 받으러 왔고 ‘나’는 이토와 깊은 우정을 쌓았다. 새해가 되는 날, ‘나’는 이토의 집을 방문하는데 자주 ‘나’에게서 진료를 받았던 중학 5 학년 학생인 林柏年(린버니엔)이 거기에 있었다. 알고 보니 린버니엔은 이토의 학생이면서 사촌동생이다. 극단적으로 일본인처럼 생활하고 일본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이토의 태도는 ‘나’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했다. 이토의 친아버지 장례식 날, ‘나’는 장례식장에서 베틀이 아닌 검은색 양복차림을 한 이토가 대만의 전통 장례식에 대해 성명함하고 그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本島人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한 것을 반성하게 되고 극단적인 태도로 일본인과 같은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이토의 인생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후, 중학을 졸업한 린버니엔은 집안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였으며, 이토는 린버니엔의 일본 유학을 미리 눈치채고 이모에게 금전 문제를 해결할 테니 린버니엔을 꼭 일본에 유학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보류 후, ‘나’는 린버니엔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이토에게 보여주려고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는 산동성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토를 발견하고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결국 보지 못한 채하고 그 동안 쌓인 우울한 기분을 참을 수 없어 ‘이제 그만! 그만!’이라고 소리치면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달렸다.

²³ 린루에밍(林瑞明)은 이 작품이 “대만 사람이 一視同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만과 일본 사이의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林瑞明,

「騷動的靈魂-決戰時期的台灣作家與皇民文學」(1992), 앞의 책.

²⁴ 本島人은 대만 사람이라는 그 당시의 명칭이고, 內地人은 일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시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洪의사를 중심으로 각각 이토 하루오와의 문제, 린버니엔에게서 영향을 받은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洪의사와 이토 하루오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洪의사의 눈에 비친 이토는 内地人 여성과 결혼하고, 어디서나 국어(일본어)만 사용하는 “내지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²⁵⁾ 지식인이다. 십 년 동안 일본에 거주했던 洪의사는 그러한 이토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가워하게 된다. 洪의사가 이토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가 일본을 떠나 대만으로 올 때의 심리상태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십 년 동안 살아온 정든 도쿄를 뒤로 한 것은 삼 년 전 봄이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날 밤의 일들이 또렷하게 머리 속에 그려진다. 蛇姫의 시모노세키(下關)행 야간열차가 도쿄 역을 출발한 것은 정각 아홉 시였다. 열차가 유라쿠초우(有樂町), 신바시(新橋), 사나카와(品川), 오모리(大森)를 차례로 경유하는 동안, 철로 변에 일렬로 늘어서 있던 가로등이 하나하나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불끈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별의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帝都의 땅을 언제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애로함이 더욱 참기 어려운 적막감으로 다가왔던 탓이 컸다.(381)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洪의사에게 국어가 능숙한 이토와의 만남은 마치 자기가 지금도 帝都의 땅에 있는 것 같고, 또한 이토와의 교류를 통해서 십 년 동안 거주했던 일본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洪의사가 고향인 대만의 현재 모습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래와 같이 진술되어 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왔다. 평소 개으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나였는데 그 날은 갑자기 신사를 참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찍 일어났다. (중략) 참배를 마친 후, 나는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처럼 주위를 개의치 않고 신사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차가운 냉기가 몸 속을 파고들 때마다 나는 내지의 저울이 그림도둑 생각이 났

²⁵⁾ 왕창웅(王昶雄), 「분류(奔流)」, 송승석 편역, 『식민주의, 서항에서 협력으로』, 역락, 2006, 385 쪽. 본고에서는 이 작품집을 인용할 때 인용된 분상 뒤에 쉼표만 밝힌다.

다. 꼭 이맘때쯤이리라. 간토우(關東) 평원의 구름 한 점 없는 저를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저들의 태양과 枯草는 이상하리만치 따스했고 저들날의 공기는 五體를 말끔히 씻어 주어 마음마저도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젠 타이완²⁶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작열하는 듯한 계절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타이완은 정말로 사람을 울적하고 답답하게 했다. 아니, 자신의 머리가 조금씩 아둔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였다.(390-391)

신사 참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온 몸이 상쾌해짐을 느낀 洪의사에게 있어, 대만은 일본과는 반대로 자기를 둔하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대만에서는 일본의 겨울을 느낄 수 있는 ‘美’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美’에 대한 생각은 계절에만 국한 되지 않고, 이토의 ‘내지인 아내’와 일본에 있었을 때 사귀었던 ‘내지인 여성’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부인은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눈썹과 이마 주위에는 비할 데 없는 청순함이 나뭇가지고 있었고, 오뚝한 콧날은 오만하지 않은 기품을 느끼게 했다.(393)

동그란 눈망울은 항상 총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어딘가 거승스럽다할 만큼 단정한 얼굴은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서는 이상하게 따듯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치렁치렁한 탐스럽고 칠촉 같은 머리가 낙낙하게 묶여 있는 것이나 알미를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선 등은 하나같이 남방 출신의 나에게서는 순수한 일본식의 매력을 던져주었다.(394)

洪의사는 이토와 달리 일본에서 사귀었던 내지인 여성과의 관계는 연애 단계까지만이었다. 그는 외아들로서 내지인 여성을 ‘대만의 벽지’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과연 내지인 여성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했고, 결국 두 사람의 연애는 유지될 수 없었다. 사랑은 사랑일 뿐인데 洪의사에게는 이 ‘진보적인 문명의 일본’에서 나고 자란 내지인 여성을 ‘낙후하고 미개한 대만’에 데려갈 수 없다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비하에서 생긴 심리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열등감

²⁶ 번역본을 준중하기에 대만이 타이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

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토와 내지인 여성의 결혼은 그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꿈같은 이상적인 생활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새해에 이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뜻밖에도 내지인 여성과 결혼한 이토가 친어머니가 아닌 내지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조금 이상함을 느낀 洪의사는 또 다른 이해 못하는 일을 목격한다. 바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토의 친어머니가 방문하였는데, 이토가 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이다.

대문가에서 조용히 문을 밀어 여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이 젓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어머! 타이베이 어머니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문 밖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괜찮아. 난 곧 갈 테니. 다들 잘 지내지요?”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인 같았는데, 그 떠들거리는 국어로 보아 필시 본도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웬지는 몰라도 이토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대문가로 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그 노파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니, 뭐 특별히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하도 오랫동안 너희들 사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춘생(春生)아, 네 아버지가 요즘 부쩍 몸이 약해지셨다. 외로워 못 살겠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니 가끔씩은 집에도 한번 들르고 그래라.”

이번에는 본도어로 말했다. 말 끝자락은 흐느낌이 되어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어쩌든 한번 들들게요.”

이토는 짜증을 내듯 툭툭스럽게 말하고는 거실로 되돌아왔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게 꽤나 흥분한 것 같았다. 얼굴 전체에는 완전히 잡혀버린 기분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397-398)

洪의사는 이토가 자기 이미지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되돌아 이토의 인생관으로 해석하려고 하였으나, 이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토가 “전통상복(베옷)이 아닌 검은 색 양복에 검은 색 완장을 차고 있(404)”는 것을 보게 된다. 이토의 상복차림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픔을 못 이겨 끝없이 곡소리²⁷하는 여인들에게도 “너 이상

²⁷ 대문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슬프게 우는 것을 허락하여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시집간 딸(손녀 포함)은 부모의 죽음을 알게 되면 바로 천정 집으로 가야 하는데, 천정

그런 풀사나운 짓 좀 그만해요!(405)”라고 화를 낸다. 심지어 法師²⁸더러 法事を 빨리 끝내라고 재촉까지 한다. 장례식장에서 이토의 태도를 목격한 洪의사는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가엾은 이토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게 느껴져서 고민의 나락으로 떨어져갔다. 이제 더 이상 이토는 洪의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洪의사는 이토의 행동을 목격한 후 “내지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내지인 장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는 동시에 자기를 낳아준 本島人 부모에게도 극진한 효도를 해야 하는 책임(408)”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토의 결혼문제가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외면하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면 일제가 내세우는 내대결혼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고, 洪의사의 눈에 비친 이토의 일본인 같은 행동은 오히려 “부적절한 모방²⁹”으로서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³⁰이라고 본다.

이 소설에서 두 번째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洪의사가 린버니엔에게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중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 부도우(武道) 전문학교에 들어간 린버니엔이 어느 날, 洪의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제가 제창하고 있는 一視同仁과는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가 정정당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더욱 당당한 타이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방에서 출생한 것 때문에 자신을 경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곳의 생활에 빠져드는 것은 반드시 고향 마을의 체취를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무식한 토착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그리움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보기 흉한 물골로 이곳에 온다 하더라도 저는 추후도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에 안기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집 근처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은 채로 울면서 집까지 기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울음 소리를 들은 머리는 집에서 나와 같이 울어야 한다. 그 외에도 남녀노소는 몸에 차고 있는 액세서리를 되도록 빼야 한다.

²⁸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의 절차를 밝히 法事を 진행하는 승려라는 뜻이다.

²⁹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대옥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14 쪽.

³⁰ 호미 바바에게 있어 모방은 “그 자체가 부인(disavowal)의 과정인 차이의 표상화로서 나타나”는 “위장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4, 177-199 쪽.

슬픈 대로 그냥 어린 아이처럼 마음 가는 대로 말져 두겠습니다.(427)

런버니언이 생각하는 一視同仁은 일제가 말하는 일본사회에 융합해 가는 동화정책이 아니라, 本島人은 일본인이 되기 전에 우선 대만 사람다운 대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洪의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洪의사가 자신을 어떠한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는 내 자신이 순수한 일본인이 되지 못하고 남방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라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내지화(內地化)에 노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의식 중에 내지인의 피가 자신의 혈관 속에 주입되어 그것이 어느새 인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394)

洪의사가 남방출신의 本島人이라서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것에 불안을 느끼는 근거로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자신이 남방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키무라 후미로쿠(木村文六)라는 가면을 쓰고 시코쿠(四國) 혹은 큐우슈우(九州) 사람이라고 거짓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 왔던 洪의사에게, 일본인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부모를 버려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토에 비하면 런버니언은 고향인 대만을 버리지 않고 민족의 존엄을 지켰으며 “일본과 나란히 같은 위치³¹⁾”에 대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가 추진해 온 一視同仁의 실질적인 차별을 간파한 런버니언의 논조가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³¹⁾ 垂水千恵, 涂翠花譯, 「多文化主義萌芽-王昶雄的例子」, 『台灣的日本語文學』, 前衛, 1998, 104 쪽.

지금까지 두 소설의 분석을 통해서 내선일체(一視同仁)와 내선결혼(내대결혼)의 문제를 알아보았다. 내선일체(一視同仁)의 문제에 있어서 두 작품에 대한 편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야 내선일체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김영준의 주장을 보면서 아직 내선일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식민모국인 일제가 주장해 온 내선일체의 모순성이 김영준의 말에 의해 밝혀졌다고 본다. 그리고 「분류(奔流)」에서는 이토와 대립되는 인물의 런비니언이 등장하고 대만을 사랑하는 本島人으로 묘사되는데, 일제가 주장하는 一視同仁의 허위를 간파하고 一視同仁이라는 동화정책이 대만의 민족성을 제거하고 일본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허위정책을 넘어서서 대만과 일본 양 민족의 위치를 같은 높이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사실상 一視同仁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선결혼(내대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선결혼(내대결혼)의 실천 가능성은 어렵다고 암시되어 있다. 「진정마음이 만나서야 말로」에서 일본인 타케오와 조선인 석관의 형식뿐인 假 결혼식이라도 타케오의 신체 장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조선인 총식과 일본인 후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식민지 남성의 젠더화로 사랑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을 보면 내선결혼(내대결혼)의 실천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류(奔流)」에서 本島人 이토와 내지인 여성의 결혼관계는 本島人 이토가 부모와 고향을 외면하고 버리는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이 겉으로는 내선결혼(내대결혼)의 가능성을 보이지만 사실상 조건 없는 순수한 남녀의 결합은 실천이 불가능한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비, 「이광수 후반기 문학의 민족 담론의 양가성」, 『어문학』, 제97집, 2007.
-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 송승석 편역,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역락, 2006.
- 심진경, 「식민/ 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005, 제28집.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 이광수(이경훈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발로』, 평민사, 1995.
-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조진기, 「일제말기 국책소설 연구」, 『人文論叢』, 제20집, 2006.
-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 제50집, 2007.
- 조진기, 『한국 현대문학의 위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존 배클라우드(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 2003.
-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國學資料院, 1997.
- 호비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4.
- 호사카 유우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J&C, 2002.
- 垂水千恵(涂翠花譯), 『台灣의 日本語文學』, 前衛, 1998.
- 林瑞明, 『台灣文學의 歷史考察』, 允晨, 1997.
- 黃英哲(涂翠花譯), 『台灣文學研究在日本』, 前衛, 1994.
- 星名宏修(莫素微譯), 「血液의 政治學-閱讀台灣皇民化時期文學」, 『台灣文學報』, 第六期, 2005.
- 許俊雅, 『日治時期台灣小說選讀』, 台北, 萬卷樓, 2003.

周婉窈,『台灣歷史圖說』,聯經,1998.

遠流台灣館編著,『台灣史小事典』,2000.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審查刊登日:2016年11月15日